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의 이상적 여성상과 의복스타일 선호도

류 숙 희 · 류 지 은

계명대학교 의류학과

The image of ideal woman and the preference of clothing in the situation of first impression formation

Sook Hee Ryoo · Ji Eun Ryu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eimyung University

(2001. 3. 8 접수)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whether characteristics of the perceiver and image of ideal woman made differences in the important factors for the selection clothing and the preference of clothing. A poll of 650 men & women between the ages of 20-39 living in Daegu was taken for this study.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frequency, ANOVA-test, t-test, and χ^2 -test were implemented with the SPSS-package.

The characteristics of clothing types used in this study included: sexy, masculine, feminine, dramatic, elegant-classic, and casua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he situation of first impression form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ceiver made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of clothing types. Women took self-satisfaction and fashion factors to be more important than men, so did persons in their 20s than 30s. And the unmarried took self-satisfaction factor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married.

2. Men and women had different images of the ideal woman. Under special situations of first impression formation, such as, formal blind dates on the condition of marriage and casual blind dates, there were differences in clothing preference.

Key words: first impression formation, formal blind date on the condition of marriage, casual blind date;
첫인상 형성, 맞선, 미팅

I. 서 론

의복은 기능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이나 정서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형성에 사용되는 단서들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의복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첫인상 형성에 있

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는데, 그 다양성에 따라 형성되는 인상도 달라진다. 그리고 첫인상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 임과 동시에 추후 상호작용의 결정 요인이 되므로 타인에 대한 첫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정보처리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복은 착용된 사회적 상황과 상호작용하여 인상

에 영향을 미치며, 인상은 착용된 의복의 외적특성 뿐만 아니라 지각자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Kaiser, 1990). 또한 동일한 지각자라 하더라도 지각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에는 차이가 있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많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의복을 남성과 같이 비즈니스 수단으로 받아들이며, 사적인 생활에서는 매혹적이고 독특한 개인성이 보여지는 개성적 의복을 선택한다(Balkwell, 1985-6; Johnson and Roach-Higgins, 1987). 또한 여성의 취업증가와 남녀의 경제활동이 동등해짐에 따라 의복에 있어 신체적인 성의 상징성은 혼동되어가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의복을 입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다(Delong, 1983). 그러나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상황 등의 변인이 매우 다양하고 통제가 어려워 인상형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이 요인들의 영향에 관하여 확실히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irgy(1982)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자아이미지를 '상황별 자아이미지'라고 하였다. 즉 상황별 자아이미지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특별한 제품 사용을 통해 자신의 자아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각 개인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상황별 자아이미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황별 인상형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착용상황에 적합한 의복스타일과 지각자가 받는 인상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이인자, 송선옥(1981) 이래로 첫인상 형성에 관한 연구들이 행해지고는 있지만 의복 착용상황은 대체로 직장 면접의 경우가 많았으며,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단서에 두었는데 의복 착용자의 착용의도를 고려해 주어진 상황하에서 그의 의도대로 인상형성이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인상형성이 상황의 격식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성간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특히 타인의 평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가정해 가장 대표적인 첫

인상 형성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맞선과 미팅의 경우를 중심으로 지각자의 특성과 이상적 여성상에 따른 여성 의복스타일의 선택기준과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주로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의 의복스타일을 통해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예복업체를 비롯한 여러 여성 의류업체의 마케팅 전략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1)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 지각자의 특성이 의복 선택기준에 미치는 영향 2) 지각자의 특성과 이상적 여성상이 상황별 의복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복과 대인지각

의복을 통한 대인지각은 학습되어온 의복의 상징에 영향을 받으며 지각자의 과거 경험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과 인상형성에 관한 선행연구 중 지각대상, 지각자, 상황의 변인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지각대상: 지각대상의 의복유형, 형태, 색상, 의복 착용자의 특성 등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데, 의복 착용자의 인상은 착용한 의복유형에 따라 태도, 가치관(Hoult, 1954) 및 성격특성이 다르게 지각되었다. 활동적인 의복 착용자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사회성이 있으며(Sweat and Zentner, 1985), 대담한 유행 의복 착용자는 매력적, 개인주의적인 사람으로 지각되는 한편 신뢰성이 없고 성실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Peak, 1986).

이은미(1992)의 연구에서 남성의 정장차림은 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시 비언어적 단서로 사용되며 정장 색, 넥타이 색 등 의복의 세부적 측면과 착용자 연령은 인상형성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은 서로 차이가 있었다.

지각자: 지각자의 신체·심리적 특성, 인지적 구조 등을 포함하는데(Lennon and Davis, 1989), 지각

자의 흥미, 내적욕구 및 기대가 다르고 판단 기준, 지각 방법,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인지각은 지각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독특하게 지각된다(강혜원, 1995).

김은애, 이명희(1992)는 의복이미지 선호도를 진보적-보수적, 캐주얼한-포멀한, 소박한-화려한, 남성적-여성적 이미지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지각자의 가치관에 따른 의복이미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가치관 변인과 의복이미지 선호도와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성이 높을수록 진보적인 이미지를 선호하고, 다양성이 높을수록 진보적, 남성적 이미지를 선호하는 반면 소박한 이미지를 싫어하였다. 결단성이 높을수록 캐주얼한 이미지를 선호하고, 목적지향성이 높을수록 소박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반면 진보적, 캐주얼한, 남성적 이미지를 싫어하였다.

상황: Sweat와 Zentner(1985)는 가정된 상황별로 남녀 대학생의 의복스타일 선호도를 연구하였는데, 낮은 사교적 상황에서는 로맨틱과 클래식을, 보통의 직업적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움과 클래식을, 높은 직업적 상황에서는 클래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를 자아 표현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상황에서는 정통성과 격식차림의 정도가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반영되며, 직업적 상황에서는 격식차림의 정도는 다양하나 정통성이 항상 반영된다고 하였다. 또한 특정한 상황에서 남성들이 적합하다고 지각한 스타일과 여성들이 선택한 스타일이 비교적 일치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황주란(1988)은 4가지의 서로 다른 상황 변수를 제시하였는데 일상적 외출시에 캐주얼, 데이트시에 엘레강스, 직장 면접시에 클래식, 결혼식장에서는 엘레강스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젊은 여성에게 상황별로 적절한 의복선택의 평가 기준은 일상적 외출시에 이미지 표현·이성의 호감, 데이트시에 이성의 호감·스타일이 아름답거나 매력적임, 직장 면접시 품위와 가족의 의견, 결혼식장에서 이성의 호감·외모와 어울림 등으로 나타났다.

2. 자아이미지와 의복행동

실제적 자아는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현재 모습

에 대해 느끼는 자아이며, 이상적 자아는 개인이 되고자 추구하는 모습의 자아이다. 이상적 자아이미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이며 자신이 장차 되어 지기를 열망하는 개념으로 실제적 자아를 비교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며(Burns, 1979), 한 개인의 의복과 몸치장은 직접적이거나 모호한 그 개인의 실제 자아 또는 그가 되고자 원하는 이상화된 자아의 투시이다(Zentner, 1971).

유수경(1993)은 성인여성의 자아지각이 긍정적이고 연령이 낮고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김양진(1996)은 그의 연구에서 여성은 우아하고 품위있고 고급스러우며 지적인 외모에 대한 선호와 열망이 크고 자기 이미지도 세련되고 지적인 외모에 일치시키려는 경향을 가지며 또한 실제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가설 및 용어정의

본 연구는 연구문제의 규명을 위해 준 실험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1) 연구가설

가설 1: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 지각자의 특성은 의복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지각자의 특성과 이상적 여성상은 상황별 의복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용어정의

① **상황:** 의복행동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 예측되는 두 가지 사회적 상황을 선택

맞선: 결혼을 전제로 한 격식을 갖춘 남녀간의 첫 만남

미팅: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맞선보다 격식이 약한 남녀간의 첫 만남

② **지각자 특성:** 본 연구에서는 주로 지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性), 연령, 결혼의 여부, 직업의 유무 등을 지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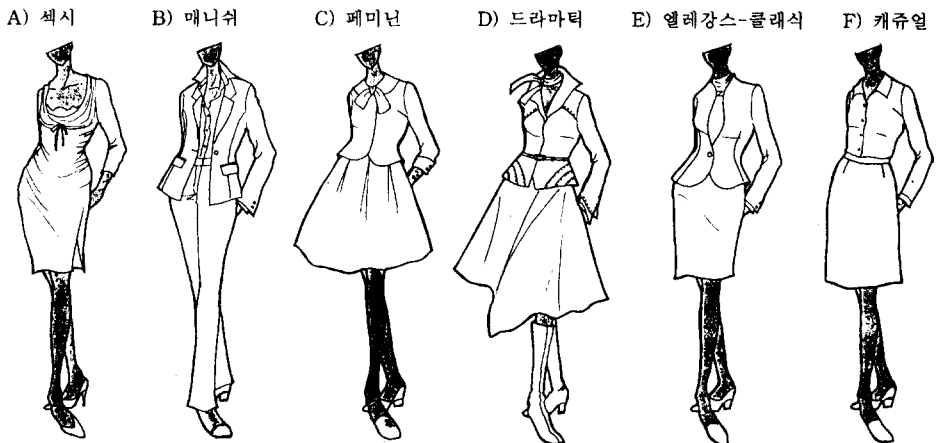
③ **의복 선택기준:** 의복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비중을 두어 고려하는 측면

④ 의복 선호도: 관찰자가 어떤 의복을 좋아하는 정도

2. 측정도구

정미실(1982), 유수경(1993), 김양진(1996)의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된 본 연구의 설문내용은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 의복선택 기준을 알아보는 문항(19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어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제시하였고 맞선과 미팅 상황에서 선호하는 의복스타일을 알아보는 문항(14문항)은 자유 응답식으로 하였으며 응답자의 이상적 여성상을 알아보는 문항(16문항)은 양 극단에 반대되는 형용사를 배치해 두고 그 사이에 7단계 의미분별 척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는 문항(9문항)을 제시해 총 5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Package를 이용한 요인분석, t-test, χ^2 -test 등을 실시하였다. 자극물로는 색상·재질·착용자의 인상이 통제된 6가지의 의복스타일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의복스타일 설정은 연구기간인 2000년도에 시판되고 있는 의복디자인 경향을 토대로 의류학 전공자 30명에게 50개의 스타일을 제시하여 6가지 의복의 스타일로 나누었으며 각 스타일 중 그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고 평가된 그림을 하나씩 선정하였다.



[그림 1] 자극물의 의복스타일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상황은 미혼자가 대상인 맞선·미팅의 상황이지만 미혼·기혼의 의복선호도 차이를 함께 고려해 보고자 조사 대상자를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20, 30대의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아직 자녀가 없는 성인 남녀 650명으로 하였고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8월 25일에서 9월 28일이다. 조사대상자의 분포는 여자(52.8%)가 남자(47.2%)보다 많았고, 연령은 20대(77.6%)가 30대(22.4%)보다 많았으며, 결혼여부는 미혼(78.5%)이 기혼(21.5%)보다 많았다. 직업은 학생(26.4%, 대학원생 포함), 전문직(21.4%), 회사원(12.8%) 등의 순이었고 무직이 10.3%였다. 월평균 수입은 50~200만원 수준이 68.7%, 200만원 이상이 4.1%로 나타나 직장인들의 월평균 수입은 50~200만원 수준이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학재학 이상이 63.7%, 전문대 재학 졸업이 26.3%,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0.1%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의 의복선택 기준

1) 의복선택 기준의 요인

가설 설정 및 부가적 관심의 규명에 앞서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 의복선택시 기준이 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표 1> 의복선택 기준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	문항 내용	요인		설명량 (%)
		부하량	고유치	
자기 중심	본인의 외모와 어울림	.766	4.550	23.947
	본인의 품위를 지킴	.751		
	본인의 이미지를 나타냄	.739		
	이성에게 호감을 줌	.736		
	스타일이 아름답거나 매력적임	.642		
	격식에 맞는 옷차림	.547		
	옷감의 종류와 품질	.395		
유행	연예인의 옷차림을 모방함	.744	2.893	15.226
	남의 시선을 끄는 것	.738		
	유행을 따름	.711		
	상표(브랜드) 이미지	.626		
	다른 사람들의 의복을 모방함	.600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521		
실용	입어서 편안함	.756	1.482	7.800
	가격이 저렴함	.645		
	몸에 잘 맞음	.518		
	개성을 살림	.513		
타인 지향	친구들의 의견을 따름	.755	1.281	6.744
	가족의 의견을 따름	.740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요인 1은 고유치가 4.550으로 설명량이 23.9%이고, 요인 2는 고유치 2.893으로 설명량이 15.2%, 요인 3은 고유치 1.482로 설명량이 7.8%, 요인 4는 고유치 1.281로 설명량이 6.7%로 나타나 네 요인의 설명량은 전체 분산의 53.7%였다.

요인 1은 「본인의 외모와 어울림, 본인의 품위를 지킴, 본인의 이미지를 나타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기중심'이라고 명명하였고, 요인 2는 「연예인의 옷차림을 모방함, 남의 시선을 끄는 것, 유행을 따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행'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입어서 편안함, 가격이 저렴함, 몸에 잘 맞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용'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요인 4는 「친구, 가족의 의견을 따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타인지향'이라고 명명하였다.

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의복선택 기준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성, 연

령, 결혼여부, 직업유무)에 따라 의복선택 기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자기중심·유행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은 자신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고 유행을 따르는 의복을 선택하는 반면 남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자기중심·유행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는 자신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고 유행을 따르는 의복을 선택하는 반면 30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유수경(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미혼이 기혼보다 자기중심적인 의복을 선택하였고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미혼이 기혼보다 평균연령이 낮기 때문에 연령별 차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2. 이상적 여성상과 상황별 의복선호도

1) 이상적 여성상 요인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요인 1은 고유치 8.178로 설명량이 51.1%이고, 요인 2는 고유치 1.520으로 설명량이 9.5%, 요인 3은 고유치 1.234로 설명량이 7.7%로 나타나 세 요인의 설명량은 전체 분산의 68.3%였다.

요인 1은 「독립적인-의존적인, 적극적인-소극적인, 활발한-차분한, 외향적인-내향적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활동적인-차분한'이라고 명명하였고, 요인 2는 「화려한-수수한, 눈에 띄는-눈에 띄지 않는」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화려한-수수한'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요인 3은 「여성적인-남성적인, 섹시한-정숙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성적인-남성적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문항들은 양극에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를 배치해 7단계 의미분별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요인 점수가 0을 기준으로 '-' 값이 클수록 왼쪽 형용사에, '+' 값이 클수록 오른쪽 형용사에 일치한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의복선택 기준

성	남		여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요인					
자기중심	-.213	1.073	.188	.892	-4.841***
유행	-.111	1.085	.098	.909	-2.495**
실용	.017	1.073	-.152	.933	.442
타인지향	.149	1.001	-.131	1.000	.775
연령	20대		30대		
요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값
자기중심	.358	.955	-.117	1.139	1.387**
유행	.462	.963	-.190	1.079	2.246*
실용	-.583	.981	.205	1.048	-2.643
타인지향	-.110	.994	.268	1.006	-.379
결혼	미혼		기혼		
요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값
자기중심	.042	.983	-.153	1.048	1.928***
유행	.023	.972	-.083	1.095	1.038
실용	-.026	.980	.096	1.070	-1.20
타인지향	-.009	.993	.032	1.030	-.406
직업	있다		없다		
요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값
자기중심	.000	1.010	-.039	.898	.256
유행	.010	1.001	-.152	1.039	1.079
실용	-.015	-.011	.214	.859	-1.537
타인지향	-.014	-.004	.200	.827	-1.448

*p<.1 **p<.05 ***p<.01

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이상적 여성상

인구통계학적 특성(성, 연령, 결혼여부, 직업유무)에 따라 이상적 여성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활동적인-차분한, 여성적인-남성적인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차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의 여성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이미지의 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오늘날 여성의 직장생활이 점차 확대되고 사회참여의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의식은 많이 변해 가는 반면에 남성은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상적 자아이미지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이며 장차 되어지기를 열망하는 개념으로 실제적 자아를 비교하는 기준의 역

할을 한다는 Burns(197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의복과 몸치장은 직접적이거나 모호한 실제적 자아 또는 이상적 자아의 투시라는 Zentner(197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연령별로는 화려한-수수한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는 화려한 이미지의 여성을 선호하는 반면 30대는 수수한 이미지의 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화려한 이미지의 여성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이 낮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 유수경(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활동적인-차분한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활동적인 여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직장생활이 점차 확대되고 필요해지는 것에

〈표 3〉 이상적 여성상에 대한 요인분석

요 인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고유치	설명량(%)
활동적인-차분한	독립적인-의존적인	.827	8.178	51.110
	적극적인-소극적인	.777		
	진취적인-순종적인	.777		
	개성 있는-평범한	.750		
	진보적인-보수적인	.717		
	활발한-차분한	.707		
	멋있는-수수한	.657		
	강한-온순한	.607		
	외향적인-내향적인	.585		
	세련된-평범한	.552		
	대담한-소심한	.549		
	화려한-수수한	화려한-수수한		
눈에 띄는-눈에 띄지 않는		.822		
여성적인-남성적인	여성적인-남성적인	.852	1.234	7.710
	섹시한-정숙한	.623		
	성숙한-귀여운	.614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이상적 여성상

성	남		여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이상적여성상					
활동적인-차분한	.260	.946	-.226	.992	5.979***
화려한-수수한	.068	.992	-.059	1.005	1.525
여성적인-남성적인	-.298	1.028	.259	.899	6.918***
연령	20대		30대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이상적여성상					
활동적인-차분한	.021	.993	-.083	1.028	1.036
화려한-수수한	-.052	.989	.197	1.000	-2.487**
여성적인-남성적인	.041	.984	-.124	1.042	1.635
결혼	미혼		기혼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이상적여성상					
활동적인-차분한	-.003	.994	.009	1.026	-.115
화려한-수수한	-.029	1.021	.105	.917	-1.315
여성적인-남성적인	.029	.995	-.104	1.017	1.307
직업	있다		없다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이상적여성상					
활동적인-차분한	-.019	.985	.303	1.126	-2.136**
화려한-수수한	-.016	.998	.217	1.058	-1.540
여성적인-남성적인	-.024	.983	.083	1.094	-.714

*p<.1 **p<.05 ***p<.01

의한 결과로 보인다.

3) 맞선 상황에서의 의복선호도

맞선 상황에서 지각자의 특성(성, 연령, 결혼여부, 직업유무)에 따른 의복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는데 성별, 연령별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E-A-C-B-D·F, 여성이 E-B-C-F-D-A의 의복 순으로 선호하였다. 남녀 모두 의복 E(엘레강스-클래식)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아 맞선 상황에서 남성은 자신의 이상적 여성상(차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과 일치하는 의복스타일을 가장 선호한 반면, 여성은 이상적 자아이미지(활동적이고 남성적인 이미지)와 차이가 있는 의복스타일을 선호했다. 이는 Zentner(1971)가

그의 저서에서 의복과 몸치장은 직접적이거나 모호한 실제적 자아 또는 이상적 자아의 투시라고 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이 자신의 이상형보다 맞선이라는 의복 착용상황을 고려해 격식을 갖춘 의복차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남성들이 적합하다고 지각한 스타일과 여성들이 선택한 스타일이 비교적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Sweat와 Zentner(198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남성은 의복 A(섹시)의 선호도가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여성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우아하고, 품위있고, 고급스러운 외모를 선호하고 자신의 이미지도 세련되고 지적인 외모에 일치시키려 하며 이러한 경향은 실제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 김양진(199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E-B-C-A-D-F, 30대가

<표 5> 맞선 상황에서의 의복선호도

			맞선 상황에서의 의복유형						전체	χ^2
			A	B	C	D	E	F		
성	남	명 %	35 12.8	31 11.3	33 12.0	16 5.8	143 52.2	16 5.8	274 47.5	35.615***
	여	명 %	3 1.0	53 17.5	44 14.5	15 5.0	172 56.8	16 5.3	303 52.5	
	계	명 %	38 6.6	84 14.6	77 13.3	31 5.4	315 54.6	32 5.5	577 100.0	
연령	20대	명 %	28 6.3	61 13.7	58 13.0	26 5.8	255 57.2	18 4.0	446 77.6	13.912**
	30대	명 %	10 7.8	23 17.8	19 14.7	4 3.1	59 45.7	14 10.9	129 22.4	
	계	명 %	38 6.6	84 14.6	77 13.4	30 5.2	314 54.6	32 5.6	575 100.0	
결혼 여부	미혼	명 %	29 6.4	65 14.4	54 11.9	25 5.5	257 56.9	22 4.9	452 78.3	6.984
	기혼	명 %	9 7.2	19 15.2	23 18.4	6 4.8	58 46.4	10 8.0	125 21.7	
	계	명 %	38 6.6	84 14.6	77 13.3	31 5.4	315 54.6	32 5.5	577 100.0	
직업 유무	없다	명 %	6 13.0	7 15.2	4 8.7	2 4.3	22 47.8	5 10.9	46 8.1	7.269
	있다	명 %	32 6.2	76 14.6	72 13.8	28 5.4	287 55.2	25 4.8	520 91.9	
	계	명 %	38 6.7	83 14.7	76 13.4	30 5.3	309 54.6	30 5.3	566 100.0	

E-B-C-F-A-D의 의복 순으로 선호하였다. 20대는 의복 E(엘레강스-클래식)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의복 F(캐주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은 반면, 30대는 의복 E(엘레강스-클래식)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D(드라마틱)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아 30대가 20대보다 캐주얼한 의복에 호의적이었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유수경(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 밖에 결혼여부,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각 특성 모두에서 의복 E(엘레강스-클래식)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아 맞선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정하고 우아한 이미지의 의복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Sweat와 Zentner(1985)의 연구에서 낮은 사교적 상황에서는 로맨틱과 클래식을, 보통의 직업적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움과 클래식을, 높은 직업적 상황에서는 클래식을 선호하며 직업적 상황에서는 격식차림의 정도는 다양하나 정통성을 항상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맞선의 상황은 사교적 상황이라기 보다는 격식을 중요시하며 정통성이 반영되는 높은 직업적 상황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면, 격식이 강한 맞선 상황에서의 의복선택은 상황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단정하고 클래식한 의복이 선호되며 이러한 의복이 인상형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미팅 상황에서의 의복선호도

미팅 상황에서 지각자의 특성(성, 연령, 결혼여부, 직업유무)에 따른 의복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는데 성별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

<표 6> 미팅 상황에서의 의복선호도

			미팅 상황에서의 의복유형						전체	χ^2
			A	B	C	D	E	F		
성	남	명 %	58 21.2	53 19.4	52 19.0	35 12.8	57 20.9	18 6.6	273 47.3	61.023***
	여	명 %	27 8.9	101 33.2	52 17.1	80 26.3	20 6.6	24 7.9	304 52.7	
	계	명 %	85 14.7	154 26.7	104 18.0	115 19.9	77 13.3	42 7.3	577 100.0	
연령	20대	명 %	70 15.7	116 26.0	79 17.7	97 21.7	53 11.9	32 7.2	447 77.7	8.593
	30대	명 %	14 10.9	38 29.7	24 18.8	18 14.1	24 18.8	10 7.8	128 52.7	
	계	명 %	84 14.6	154 26.8	103 17.9	115 20.0	77 13.4	42 7.3	575 100.0	
결혼 여부	미혼	명 %	67 14.8	124 27.4	77 17.0	94 20.8	58 12.8	32 7.1	452 78.3	2.887
	기혼	명 %	18 14.4	30 24.0	27 21.6	21 16.8	19 15.2	10 8.0	125 21.7	
	계	명 %	85 14.7	154 26.7	104 18.0	115 19.9	77 13.3	42 7.3	577 100.0	
직업 유무	없다	명 %	11 23.9	13 28.3	5 10.9	7 15.2	7 15.2	3 6.5	46 .81	4.992
	있다	명 %	73 14.0	138 26.5	97 18.7	106 20.4	68 13.1	38 7.3	520 91.9	
	계	명 %	84 14.8	151 26.7	102 18.0	113 20.0	75 13.3	41 7.2	566 100.0	

를 나타내었다. 남성이 A-E-B-C-D-F, 여성이 B-D-C-A-F-E의 의복 순으로 선호하여 남녀 모두 의복 E(엘레강스-클래식)를 가장 선호하던 맞선 상황과는 달리, 남녀간 의복선호도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먼저 남성의 경우, 남성은 가장 개성적으로 지각하고 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한 의복 A(섹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신의 이상적 여성상(차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과 일치하는 스타일인 의복 B(엘레강스-클래식)에 대한 선호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개성적이지 않게 지각한 의복 F(캐주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격식의 정도가 약한, 사교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미팅의 상황에서 남성은 개성적이고 성적매력이 있는 화려한 의복을 선호함과 동시에 차분하고 여성적인 의복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이상적 자아이미지(활동적이고 남성적인 이미지)와 일치하는 스타일인 의복 B(매니쉬)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개성적으로 지각한 의복 D(드라마틱)의 선호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맞선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던 의복 E(엘레강스-클래식)의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미팅의 상황에서 여성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선호함과 동시에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의복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결혼여부,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각 특성 모두에서 의복 B(매니쉬)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아 미팅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이미지의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격식의 정도가 약한, 사교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미팅의 상황에서는 상황에 의한 영향을 덜 받으며 자신의 이상적 이미지와 개성을 잘 나타내는 의복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적인 생활에서 여성들이 매혹적이고 독특한 개인성이 보여지는 개성적 의복을 선택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Balkwell, 1985-6; Johnson and Roach-Higgins, 1987), 한 개인의 의복과 몸치장은 직접적이거나 모호한 그 개인의 실제 자아 또는 그가 되고

자 원하는 이상화된 자아의 투시라고 한 Zentner (197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가설 2>는 긍정되었다. 그러나 각 의복의 선호도에 대한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도 있어, 이러한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 지각자의 특성과 이상적 여성상에 따라 의복 스타일의 선택기준,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6가지 의복스타일은 섹시(A), 매니쉬(B), 페미닌(C), 드라마틱(D), 엘레강스-클래식(E), 캐주얼(F)이었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 지각자의 특성에 따른 의복선택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20대가 30대보다 자기중심·유행 요인을 더 중요시하였으며, 미혼이 기혼보다 자기중심 요인을 더 중요시하였다.

둘째, 남성이 차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한 반면 여성은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해 성별에 따른 이상적 여성상에 차이가 있었으며 첫인상 형성 상황(맞선, 미팅)에 따른 의복선호도에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남녀의 이상적 여성상이 다르게 반영되어 나타났다. 맞선 상황에서 남녀 모두 엘레강스-클래식한 의복을 가장 선호해 남성들이 적합하다고 지각한 스타일과 여성들이 선택한 스타일이 일치했으며, 30대가 20대보다 캐주얼한 의복을 더 선호했다. 미팅 상황에서는 남성이 섹시한 의복을 가장 선호한 반면, 여성은 매니쉬한 의복을 가장 선호해 남녀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볼 때 전체적으로 남성은 섹시한 의복에 호의적이고, 여성은 매니쉬·드라마틱한 의복에 호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 지각자는 맞선 상황에서 엘레강스-클래식한 스타일의 의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이상적 여성상이 반영되어진 반면, 미팅 상황에서는 섹시한 의복스타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맞선과 미팅 상황의 격식 정도에 의해 의복선호도가 달라

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성 착용자는 맞선 상황에서 엘레강스-클래식한 의복을 선택함으로써 남성이 선호하는 여성의 이미지로 자신의 인상을 형성하는 반면, 미팅 상황에서는 상황이나 지각자에 구애받지 않고 매니쉬한 의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이상적 여성상의 이미지로 인상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맞선 상황에서 여성스러우면서 클래식한 의복스타일을 착용하고, 미팅 상황에서 섹시한 의복스타일을 착용하는 것은 상대 남성에게 호감있는 인상을 형성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이 대구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측정도구에서 색상·재질·착용자의 인상이 통제된 그림자극물을 사용하여 신체적 외모에 영향을 주는 색상이나 재질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다양한 의복유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속연구로는 여성의 의복뿐만 아니라 남성의 의복유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김양진(1996). 유행의복 이미지가 개인의 자아개념과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은애·이명희(1992). 가치관과 의복이미지 및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복식, 18: 269-281.
 유수경(1993). 성인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교육논총, 13: 170-190.
 이인자·송선옥(1981). 첫인상 형성에 미치는 의복과 인물의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미(1992). 남성 정장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미실(1982). 남자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주란(1988). 상황별 의복선택에 관한 연구: 의복스타일과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alkwell, C.(1985-1986). On peacocks and peahens: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economic development on sex differences in dres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4(2): 30-36.
 Burns(1979). The self concept. New York: Longman Inc.
 Delong, M. L., C. Salusso-Deonier., and K. Larntz.(1983). Use of perceptions of female dress as an indicator of role definition,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1: 327-336.
 Hoult, T. F.(1954). Experimental measurement of clothing as a factor in some social ratings of selected American 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 324-328.
 Johnson, K. K. P., and M. E. Roach-Higgins.(1987). Dress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f women in job interview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3): 1-8.
 Kaiser, S. B.(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Lennon, S. J., and L. L. Davis.,(1989). Clothing and human behavior from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part I: Theoretical perspective,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7(4): 41-48.
 Sirgy, M. J.(1982). Self-concept in consumer Behavior: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287-300.
 Sweat, S. J., and M. A. Zentner.(1985). Female appearance presentation: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attribution and situational choi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2): 175-186.
 Zentner, M. A. S.(1971). Perception of clothing usage, clothing attitudes and practices and self-accept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The State University Press.